

2018 연차 보고서



2018 연차 보고서

CONTENTS

- 03 여는글
- 04 에세이1 개식용철폐
- 05 에세이2 사자가족 이주
- 06 에세이3 케이지프리
- 07 에세이4 반려동물복지센터
- 08 입법/정책
- 10 캠페인
- 14 이슈대응
- 18 연구조사교육
- 20 나눔사업
- 22 반려동물 복지 센터
- 24 재정보고

곳곳의 동물들, 동물자유연대가 더 확장해나가야 하는 이유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벚꽃이 만발한 봄을 지나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위에 움츠리던 우리 반려동물복지센터의 동물들도 한껏 기지개를 켜고 봄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센터 주변의 나무들도 자신을 뽐내며 푸른 잎을 무성히 펼쳐 곧 다가올 한여름, 우리 동물들의 더위를 식혀주겠지요.

이번 봄호 <함께 나누는 삶>은 지난 한 해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과 살림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꾸몄습니다. 활동과 사용 재정을 돌아보니 역시 ‘반려동물 구호활동’이 제일 두드러지네요. 직접 구조, 치료, 보호 관리 및 입양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나눔사업으로 분류한 풀뿌리 단체 및 캣맘·캣대디 지역커뮤니티, 개인 구조자들 지원 활동 비용까지 더하니 전체 고유목적사업 활동비 중 약 74%의 재정을 동물 구호활동에 사용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직접 구호활동을 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구호활동과 지역커뮤니티들을 지원하는 나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구호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눔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을 단체의 직접 구호활동에 사용하면 동물자유연대가 두드러지고 더 빛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가 개인 구조자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큰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동물자유연대는 시민 참여를 북돋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보편적 동물구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눔사업은 성과가 있습니다. 지역 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캣대디 모임 중 일부는 동물자유연대의 지원금으로 TNR 활동한 것을 토대로 관할 시·구에 TNR 예산 편성 또는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단체의 TNR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역 모임을 지원하는 궁극적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한편, 2018년, 우리 동물자유연대가 타 단체와 차별화된 활동이 있었다면 단연 동물원의 콘크리트 방에만 갇혀 살던 사자 3마리를 구조해 미국의 생츠퍼리로 이주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는 동물자유연대가 2013년, 2015년, 2017년에 남방큰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보낸 캠페인의 연장선과 같은 활동입니다. 3년여 시간을 비좁은 콘크리트 방에 갇혀 살던 사자들이 드넓은 평원을 배회하는 그 모습의 감동은 영원히 잊지 못할 보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 동물자유연대는 풀무원과 ‘케이지 프리’ 협약을 했습니다. 암탉들은 A4 한 장도 안 되는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 평생 동안 알만 낳습니다. 그 케이지로부터 암탉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동물자유연대의 활동 목표 중 하나입니다. 풀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캠페인에 따라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모든 계란을 케이지 프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 협의를 하며 약속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약했습니다.

이렇듯 동물구호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다른 방향으로 전사동물과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한 활동,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도 많이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반려동물 외의 다른 동물에 많은 활동 분배를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역량을 더 키우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물자유연대가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 늘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누렁이들에게 복(伏)날이 아닌 복(福)날을

2018년은 우리 사회가 개식용을 ‘지켜나가야 할 문화’가 아닌 ‘없애야 할 악습’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개식용 철폐를 위해 함께했고, 반려견과 식용견이 구분될 수 없으며, 보신문화라는 이름의 잔인한 동물학대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함께 외쳤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개식용 시민인식조사는 개식용 수요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진단 및 예측해 개식용 종식이 머지않아 곧 다가올 미래임을 보여줬습니다. 비단 시민인식조사 결과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 개식용 종식 캠페인은 곧 다가올 ‘개고기 안 먹는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초복에는 1,500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개고양이의 임의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자발적 집회가 열렸고,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했던 생명평화말복문화제에는 뜰장의 누렁이들에게 복(伏)날이 아닌 복(福)날을 선물하고픈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개식용 철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무려 40만 명이 넘어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식용 철폐는 이제는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2018년 11월 국내 최대 개도살장인 성남시 모란시장과 태평동 개도살장의 철거는 개식용 종식에 있어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들을 볼모로 끈질기게 버텨왔던 개고기 메카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지속적 요구와 시의 노력으로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놀랄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뜰장 위 개들의 죽음은 현재진행 중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수많은 누렁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동물자유연대는 개식용 철폐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중심에서 ‘개식용’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사자 가족이 보여준 동물 전시의 문제점

1,240일, 그리고 41시간 만이었습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좁은 내실에만 머물러야 했던 어린이 대공원의 사자 가족이 바람이 불고 풀이 돌아난 땅을 밟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동물원 전시 중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내고 내실에서 감금 생활을 하던 중 생츠퍼리로 이주한 다크, 해리, 해룡이의 상황은 동물 전시의 비극과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의 동물 감금은 해당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에도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자 돌고래 수입제한 조치처럼 야생동물의 포획 및 수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와 함께 돌고래 방류와 사자 가족 이주처럼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생츠퍼리로 옮겨 새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시설에 남겨진 동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자 가족은 다행히 생츠퍼리에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밖을 나섰던 뽀롱이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국내에 수많은 뽀롱이가 좁은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자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뽀롱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시 동물을 줄이고, 남겨진 동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암탉을 철창에서 해방하라!

우리나라 산란계의 95% 이상은 철창인 케이지에 감금돼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인도적인 산란계 사육 방식, 이른바 유럽연합은 일찌감치 금지한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입니다. 배터리 케이지에 갇힌 암탉은 1마리당 A4용지만 한 작은 공간에 갇힌 채 죽는 날까지 알만 낳습니다. 달걀 산업의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현실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부터 기업을 상대로 케이지 프리(Cage Free)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케이지 프리는 산란계를 철창(Cage)에 가두지 말자(Free)는 뜻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달걀의 생산환경에서 모든 종류의 케이지를 퇴출하라는 뜻입니다. 기업 하나가 바뀌면 개별 기업 당 달걀 소비나 유통량이 크기에 한 번에 산란계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첫해 8월, 동물자유연대는 풀무원의 케이지 프리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풀무원의 브랜드 달걀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2028년이면 국내 판매되는 브랜드 달걀 대부분이 케이지 프리 달걀인 ‘동물복지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암탉이 철창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이니 팔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 중인 포시즌스호텔, 매리어트호텔 등 글로벌 호텔기업도 케이지 달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뀌야 할 기업이 수백, 수천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할 국민은 필시 수백만, 수천만명이 분명합니다. 케이지 프리로 암탉을 철창에서 해방합시다!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동물들, 동자연의 품에서 웃음 되찾다

빈집이 군데군데 있는 재개발촌. 골목 어귀에서부터 악취가 풍겨왔고 냄새를 따라 들어간 좁은 골목 끝에서 개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 마당까지 개들의 오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들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인 방 안의 환경은 더 처참했습니다. 개들은 변 위에서 먹고 변 위에서 자고 변 위에서 죽는 수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법 번식장이었습니다. 60여 마리 모든 개들의 표정은 어둡고 그늘져 있었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눈동자가 터질 듯 커졌고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우주 어딘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행성에 고립된 모습이었습니다.

개들을 구조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신나게 달려옵니다. 활동가의 손은 두 개인데 누구부터 안아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왼쪽에선 ‘뿌니’가 머리를 비비며 애정 공세를 하고, 오른쪽에선 ‘마뽀이’가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서 안아달라’ 보칩니다. 앞에선 ‘우순’이가 이미 점프해 활동가의 무릎을 차지했네요.

“동물자유연대 동물들은 참 밝아서 좋아요!” 구조한 동물들의 치료를 맡아주는 협력병원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은 일상, 아파도 치료받지 못해 고통받고 죽음보다 모진 삶을 살던 동물들이 동물자유연대 품에서 웃음을 찾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웃음은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귀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회원님들께 감사합니다. 2019년은 매일 웃음으로 들쭉이는 반려동물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 계획 철회 요구 활동

입법/정책

AI 3km 이내 살처분 의무화 반대

일단 죽이고 보겠다는 정부, AI 발생시 3km 이내 살처분 의무화를 반대하고 살처분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

체고(體高)라는 비합리적 기준으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워도 될까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반려동물정책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의견 및 민원 조직으로 올바른 반려동물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동물정책 - '6·13 동물을 부탁해'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를 맞아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직접 동물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수용한 200명의 후보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 계획 철회 요구 활동

반생명적 발언을 이어오던 이개호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 조직으로 장관의 사과 및 동물복지업무 적극 추진 의사 표명을 확인했습니다.



맥도날드 케이지 프리 #언해피밀

캠페인

풀무원 케이지 프리 선언

기업이 바뀌면 동물의 삶도 바뀝니다. 국내 브랜드란(卵) 점유율 80%의 풀무원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2028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식용란을 케이지 프리 제품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맥도날드 케이지 프리 #언해피밀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해피밀. 그러나 그 재료는 언해피한 산란계로부터 얻은 달걀입니다. 언해피밀 캠페인을 통해 한국 맥도날드로부터 매장 내 사용되는 식용란을 2025년까지 동물복지란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일리(1, 2) 있는 달걀

달걀사육환경표시제 시행에 맞춰 소비전환 캠페인 일리(1, 2) 있는 달걀 캠페인에 1,75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2019년에도 ‘일리 있는 달걀’은 계속됩니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

초복을 맞아 1,500여 명의 시민들이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웠던 개식용 종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피, 안 먹는 데이

개고기 소비실태 및 시민인식 조사는 개식용 종식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말해줬습니다. 개식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들은 개식용 종식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평화말복문화제

말복을 맞아 300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음악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명평화말복문화제에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뜬장의 누렁이들이 복(伏)날이 아닌 복(福)날을 맞이하길 기도했습니다.

서초 몽마르뜨 공원 토끼 유기방지대책 수립

서울 도심 한복판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서초 몽마르뜨 공원에 유기된 토끼 108마리의 중성화 수술과 치료비를 지원, 입양을 추진하고 앞으로 유기되는 토끼가 없도록 유기방지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사육곰 사육현장 조사 및 청와대 민원

이슈대응

사천 새끼돼지 망치 살해사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를 망치로 내리쳐 죽인 농장을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 축산물 이력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납품대상 거래 중단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육곰 사육현장 조사 및 청와대 민원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 사육현장 조사와 시민의 관심 촉구를 위한 청와대 민원 실시했습니다.

농장동물 장거리 이송 반대 캠페인 - 'STOP LIVE Transport'

농장동물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까지 고통에 시달립니다. CIWF(Compassion in World Farming) 및 전 세계 동물단체들과 장거리 이송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양계농가 850만 마리 살처분 반대

달걀 가격이 하락하자 닭을 죽여 가격을 올리겠다던 양계농가. 이유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태평동 개도살장 철거

생산판매업 모니터링, 신고, 고발 활동

끔찍한 강아지 공장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숨은 틀린계약서 찾기’ 캠페인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등을 통해 그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태평동 개도살장 철거

2018년은 개식용 철폐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해였습니다. 개고기의 메카, 국내 최대 개도살장인 태평동 및 모란시장 개도살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식용’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동물학대사건 대응/구조

2018년 한 해에도 학대받은 동물들의 고통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천안 펫샵 방치 치사사건, 성내동/천호동 개 아사사건, 루키 살해사건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수많은 동물학대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연구조사/교육



01

2018년 활동 정리 4. 연구조사/교육



02

달걀사육환경 조사

마트별 판매 식용란 사육환경 및 브랜드란 사육환경 조사를 통해 2018년 케이지 프리 활동에 활용할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국내 4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판매 달걀사육환경 표시 전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8 OWA 글로벌 써밋 참가

전 세계 각국의 케이지 프리 운동 흐름과 캠페인 전략 및 스킬을 공유하는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개고기 소비실태 및 시민인식 조사

개고기를 자발적으로 섭취한 사람보다 주변의 권유나 강요로 섭취한 경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수요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개고기 수요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키자니아 동물 보호 교육

어린이 인성 교육으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보호자의 동물 의식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동물 활동가 체험을 통해 동물 감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 동물 보호 자료 제작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대상 동물 보호 교육 사업의 하나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동물 보호 교육 자료를 제작 완료하여 배포했습니다.

01 2018 OWA 글로벌 써밋 참가

02 달걀사육환경 조사

나눔사업



2018년 활동 정리 5. 나눔사업



풀뿌리단체 지원사업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11개 단체에 49,380,920원을 지원해 208마리 중 85마리(입양률 40%)가 입양됐습니다.

캣맘협의체 TNR지원사업

9개의 캣맘협의체가 참여해 45,597,150원을 지원해 총 847마리의 길고양이에게 TNR을 시행했습니다. 진주시, 목포시의 경우 지역 캣맘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TNR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HIGH PAW 지원사업 (개인구조동물 치료비 및 TNR)

유기, 방치,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동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개인구조동물 치료 지원을 통해서는 240마리(135,770,448원)가, TNR 지원을 통해서는 123마리(16,747,048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01 풀뿌리단체 지원사업
02 캣맘협의체 TNR지원사업

반려동물복지센터



2018년 활동 정리 6. 반려동물복지센터



돌봄 중인 반려동물

-366마리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구조 동물 수 ▶ 개, 고양이 204 / 토끼 1

입양된 반려동물

-175마리 (2018년 12월 기준)

결연 유지 건수

-3032건 (2018년 12월 기준)

자원봉사자

-932명 (2018년 12월 기준)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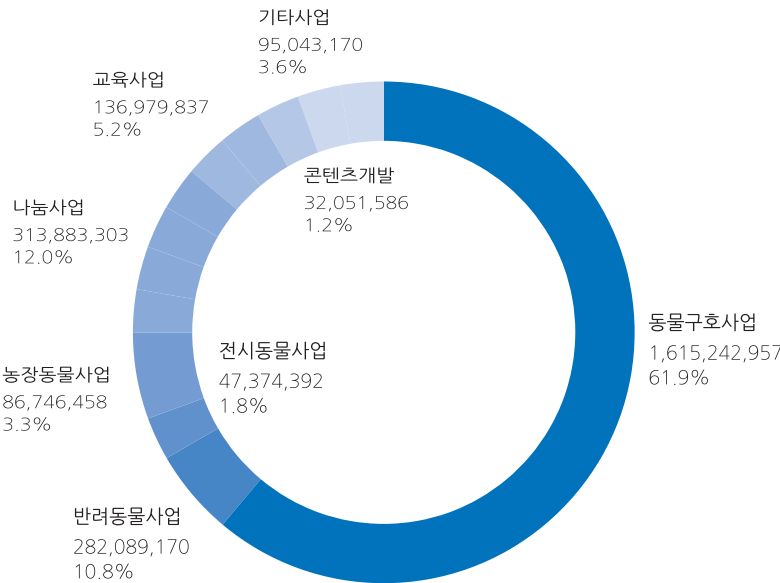
2018 수입

구분	합계
공익목적사업수익	4,418,653,258
정기후원금	3,751,558,457
일시후원금	580,370,297
물품후원	86,724,504
이자수익	118,924,016
사업외수익	197,240
수입총액 ①	4,537,774,514

2018 지출

구분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3,104,264,779	
고유목적사업비용	2,609,410,873	- A
일반관리비용	291,223,881	
모금비용	203,630,025	
사업외비용	592,987	
동물시설장치	22,400,000	
임차보증금	30,300,000	
기금적립	890,000,000	- B
제2보육센터건립금적립	360,000,000	
사무실마련적립	500,000,000	
남양주센터시설보수적립	30,000,000	
지출총액 ②	4,047,557,766	
잔액 ①-②	490,216,748	- C

A. 고유목적사업



B. 기금 적립

현재 남양주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복지센터의 과밀화 상태를 감안해 현재의 보호동물을 분산하고 추가 동물 구조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2보육센터’의 건립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일정 금액을 건립 기금으로 적립해오고 있었으며, 2019년에는 그간 적립해온 기금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부 사무공간의 경우 여러 단체들의 상황처럼 임대료와 이사 부담 등을 덜고 안정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 계획 중입니다. 다만, 제2보육센터 기금이 언제나 우선순위로써 적립돼왔으며 사무실 기금은 제2보육센터 기금이 안정되기 시작한 2017년 첫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C. 불용 예산

2018년 불용 예산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2018년 계획된 어린이대공원 사자 3마리 미국 생츠퍼터 이전 비용으로 책정했던 예산을 전액 외국 단체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비용 지출이 사라져 대부분 불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사업비로 책정한 인식개선 대시민 광고비 등이 효과성 검토 후 불용 판단되어 이 또한 불용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